

사순 제 4 주일

기도서 266 편

제 1 독서 : 여호 5, 9a, 10-12

제 2 독서 : 고린 후 5, 17-21

복음 : 루가 15, 1-3, 11-32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강론

너무나 크신 자비

김 병 엽 신부



1951년 봄의 어느날, 보슬비가 아침부터 내리고 있었다. 6·25 전쟁이 시작될지 10여개월이 지난 후였다.

여수·순천 반란사건, 용전전투, 개성 종약산 전투에서도 무사했던 비제 형의 소식이 두절되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 걱정을 너무하시다가 어머니은 눈꺼풀까지 빨갛게 무르셨다.

형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어느날 어머니는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고, 나는 마루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신작로에서 “막둥아, 막둥아”하고 동네 형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음성은 보통 때와는 달리 흥분해서 급히 부르는 소리였다. 일어서서 신작로 쪽을 보니 군복을 입은 군인이 우리집 쪽을 향해 걸어 오고 있었다 분명히 비제 형이었다.

“어머니, 성(형)이 오네”

“어떤 성, 닛째 성(비제 형)”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놓고 황급히 방을 나오셨다. 그때 나는 비가 오기 때문에 마루 밑에 두었던 신발을 꺼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버신발 그대로 젖은 땅을 뛰고 계셨다.

“저런... 젖으면?...”

어머니와 형은 한명어리가 되어 그동안 보고 싶었던 것, 걱정하셨던 것이 모두 울음으로 변해 눈물을 흘리셨다. 동네 사람들이 금방 구름처럼 형과 어머니를 에워싸고 함께 울고 있었다.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아들을 대하시고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하시며 울고 또 우셨다.

휴가가 끝나고 귀대하던 날 밤 길이 잠든 나를 깨우시며, “성은 지금 가만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잠이 그렇게 오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다되지 않아 다시 잠이 들었던지 “막둥아, 막둥아 지금쯤 대전이나 룬산이나 갔겠냐”는 것이었다.

유한한 인간의 정(情)도 자기 자녀에 대하여 이렇게 무궁무진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무하하신 하느님은 어떠실까? 그 사랑과 자비는 그러기에 “일곱번쯤 용서해 줄까요?”라는 사도 베드로의 질문에 “아니야 일곱을 일흔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졌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자비에 신뢰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용서하기 전에 돌아왔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기뻐서 목을 껴안고 입 맞추신 아버지의 자비에 어찌 우리의 죄가 태산 같단 한들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비에 폭 안겨 고이 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오리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넣어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러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 영혼 성성하게 생기 돌아라.”

(전동 주임신부)



소경

제 닭 잡아 먹기

세계적인 프로 테니스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범 경기를 갖는다고 한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관심의 큰 일이 되겠다. 몇 년 동안 세계를 휩쓴 대가들의 경기인지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또는 테니스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구경할만한 예술작품이 되고 남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직 하나, 우리처럼 한 푼의 외화라도 아껴써야 할 처지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이다. 두 선수에게 나가야 할 상금의 총액만 10만 달러라 한다. 그 외에 소요될 경비도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으로 보아 썩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어려웠던 50년대를 넘기고, 60년대와 7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한 나라가 바로 우리이다. 없는 가운데에 무언가 해보자 하니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 값아야 할 빛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국제적인 경제사정조차 슬픔이 갈 트이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당대에 해결을 못보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짐스러운 유산으로 남을 것을 생각하면 더욱 짝짝하다.

지금은 한 푼의 외화라도 아껴야 할 때이다. 필요 이상의 국제경기를 벌여 돈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스폰서가 부담하는 모든 것들(광고비 등)이 결국은 소비자인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들이다. 소경 제 닭 잡아먹고 이쑤시는 어리석음, 외상이면 소라도 잡아먹자는 허황된 생각일랑 접어치우자. 빛 얻어 쓰기로 하던 누군들 멋들어진(?) 살림을 못살겠는가! 제발 분수 좀 지키자.

사순절에 우리는 조그마한 극기(克己)에 힘쓴다. 그렇게 해서 모아지는 걸로 사랑을 나누는데 참 크리스찬 정신이 있다. 아끼자.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고 풍요로와지자.

숲 정 이 산책



축하합니다

노동의 영성

모든 노동자의 주보이신 요셉성월을 맞아 또한 고행의 시기인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노동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

하느님의 계시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창조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인간은 능력의 한도내에서 그 활동을 계속하며 창조된 자원과 가치를 발전시킴으로써 창조활동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창조활동은 하느님이 7일째에는 쉬시면서 '6일' 동안에 하셨던 일이라고 계시된다. 노동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은 어쩌서 노동이 존엄한 것인지 보여준다.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을 닮았으므로 노동을 통해서 창조주 하느님을 모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느님이 당신의 창조활동을 노동과 휴식의 형식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노동과 휴식을 통해서 하느님을 본받아야 한다.

인간의 노동은 하느님의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일상생활의 활동에도 침투되어야 한다. 인간은 노동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일용품들을 조달하는 반면에 사회에 공헌하듯이, 인간은 형제자매의 편의를 돌보고 노동으로써 하느님의 계획실현에 공헌하는 동시에 창조주의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재능과 노력으로 생산된 업적이 하느님의 능력에 대항하고, 이성적(理性的) 인간이 창조주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안된다.

인간의 노동이 창조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돌보이게 되었다. 그분은 노동세계에 속하였고 노동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졌다. 노동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은 바로 바울로의 가르침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바울로는 천막제조자로서의 직업을 자랑스러워 하였고,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하면서 전교한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1 데살 3, 10)고 자신있게 말하였다.

육체노동이거나 정신노동이거나 모든 노동에는 고통과 수고가 따른다. 이 고통은 인생살이의 특징이고 또한 죽음의 선언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관한 최종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빠스카 신비에서 찾아야 한다. 빠스카 신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기까지의 순명(順命)을 포함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포함한다. 이 신비는 인간노동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수고와 고통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활동과 사명에 참여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인간의 구원이 십자가상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서 왔듯이, 인간이 노동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참아견딜 때, 인간 구원의 협력자가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노동뿐 아니라 그것에 필연적으

고백성사—용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용서는 우리들의 죄보다 훨씬 큰 사랑의 표징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에게 있어 고백성사란 짐스럽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특히 매년 부활이나 성탄이 다가올 때면 판공성사를 치루어야 하는 관례로 더욱 짐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또 한편 고백성사를 보고 나면 십년 묵은 체증이 뚝 떨어진 것처럼 시원한 느낌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원하다는 느낌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금 짐스럽기는 하지만 고백성사를 보려고 의식적으로 애를 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성사를 잘못 이해해 온 데서 비롯된 것이고 결코 고백성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본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성사란 본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구원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사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 즉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자의 기쁨, 즉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었다. 또한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 가치관의 변화,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 등을 체험하기는 하나 아직 역사 속에서 매우 애매 모호한 상태 속을 걷고 있으며 약한 의지를 지닌 채 유혹에 직면하고 있다(마태 4, 11; 로마 7, 19; 요한 1, 8-10). 이러한 상태는 안팎으로 불안과 분열을 초래하여 자신과 자연계, 사회, 하느님과의 부조화를 해결하려는 완전한 화해를 열망하게 한다.

고백성사는 잃어버렸던 자기 존재의 통일을 되찾고 공동체와도 화해할 수 있는 회심과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회심과 용서를 통한 타인과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어떠한 약함, 어떠한 죄도 초월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은 자기의 과거, 내적분열, 죄 속에 그냥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큰 사랑의 표징인 것이다.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베드로의 길은, 자신의 절망 속에 휩쓸려 자살하고 만 유다스의 길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이며, 우리 모두가 구하려고 하는 길은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길이 아니겠는가?

로 따르는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활동에 참여하고 무한한 가치의 효과와 결실을 생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목 85호)

남자 수도자 성소 상담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형제들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마리아회 수도원은 교육사업을 통하여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121.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03-2 마리아회(마리아니스트) 수도원

L. P. G 판매, 시설
한국 가스 상사
 신속배달, 무료점검
 ☎ ① 1457, ④ 5928
 주 이 안젤라

K. S. 표시 허가공장
신흥 콘크리트
 ☎ ③6016 ⑥6415
 대표 이교성(요셉)
 시멘트, 벽돌, 블록, 보도블록, 철근 콘크리트근가, 철근 콘크리트판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광
 전화 ⑥ 6666~8
 대한항공 국내의 대리점
 결혼여행, 제주도, 신혼여행 안내

200주년을 앞두고

교구장 박 정 일 주교

우리는 닥아오는 1984년에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200주년을 앞두고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이 땅에 빛을' 전하는 전기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2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모르는 듯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겨레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된 것을 경축합니다. 1784년,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고 있던 우리 선조들 가운데 이승훈(베드로)이 최초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힘에 의하지 않고 선조들 스스로 믿음을 찾아 얻었던 사실은 실로 한국교회의 자랑이요, 하느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음으로 순교의 고통과 피로 신앙을 지키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선조 순교자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기리며 그들의 순교정신을 본받기로 다짐하자는 데에 200주년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100여년 동안 계속된 모진 박해 속에서 선조들은 목숨을 바쳐 그 믿음을 우리에게까지 전 해준 것입니다.

또한 목숨을 바쳐 믿음을 증거한 순교 선열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 과거를 돌이켜 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는 가운데 300년대를 향해 보다 복음적인 한국교회가 되기 위한 교회혁신과 토착화 및 새로운 선교 대책을 강구하자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먼저 200주년을 기념하는 정신 가운데 선교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보다 전교에 적극적인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8개 본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장은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 많은 순교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알기 위한 공부와 특별한 공경(순교자유해 순회 기도회)이 필요합니다. 순교지, 유적지를 꾸미는 일도 당연히 후손으로써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부모의 회갑, 생신을 위해 잔치를 기쁘게 차려드림이 즐겁고 좋은 일이지만 가족들의 회생이 따르게 됩니다. 200주년 기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갑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은 서로 하나됨을 느낍니다. 200주년을 위해 함께 일하면서 마음의 일치와 교구 공동체가 공고히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교구 공동체의 해인 이 한 해가 200주년을 준비하고 교구 발전을 다지는 데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일치하기를 당부합니다.

200주년 기념 심볼 마크



1. 큰 원은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며, 이 땅의 우리 겨레에게 그리스도의 빛, 즉 복음이 전파된다는 내용을 시각화한 것이다.

2. 빛 안의 작은 원은 성체를 상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체감을 나타낸다.

3.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상징하며,

4. 십자가 안의 별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5. 붉은색은 태양의 빛을 상징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믿음과 순교정신을 나타낸다.

6. 푸른색은 그리스도의 심오한 진리를 상징한다.



200주년 기념 슬로건

'이 땅에 빛을'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에서 공적으로 인준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슬로건이다. 200주년 기념의 의의와 목적에 상응하는 주제로서, '이 땅'이란 우리 겨레와 국가를 상징하며 '빛'이란 그리스도 자신(요한 8,12)을 상징하는 것으로 곧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슬로건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세심됨으로써 '그리스도화' 내지 '복음화' 되자는 뜻과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온 겨레에게 적극적으로 전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이가 복음화 되자는 염원을 담고 있다.

숲정이 200주년 특집 특별기고

매달 1회 숲정이 특집으로 발행하게 될 200주년 기념 특집호에 김 진소 신부님의 교회사에 관한 특별 원고가 앞으로도 계속 연재될 예정입니다.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능직 여사원 모집 안내

당사는 피혁제품 수출업체로써 기술을 익힐 수 있으며,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모집인원 : 여자 00명

자 격 : 14세~20세 미만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자필 이력서

모집기간 : 83. 3. 1~83. 4. 30까지

전주산업사 ☎ 72-1810 정 루 시 아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에게는 혼배반지를 기념으로 기증함

보 석 장

군산경찰서 전복은행 앞

☎ 6603

한 철 재(비오)

최윤경 미용실

(유리안나)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2496 ☎ 8653



□ **교구사①**

한국 천주교회의 전주교구사

부모의 얼굴을 모르는 고아도 틀스럼게 자란다. 죽보와 역사를 모르지만 출세와 생계에 지장이 없듯, 교회사를 모른다고 신앙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구원의 결격사유가 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사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과거 사람들이 어떤 사고(思考)와 행동으로 무엇을 남겨 놓았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 그날을 사는 데 급급하고 오늘에 최종관심을 두고 중요시하는 현실주의자들에게 역사는 한대(寒帶)인지 모른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은 초목과 동물뿐임을 어찌랴. 더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역사를 떠나서 자기 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따끔하게 명심해야 한다.

신앙의 원천인 성서는 장대한 역사책이다. 하느님은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 성서를 모르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자격미달이다. 그리스도교인은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무집한 세상에 광채 오신게 아니지 않은가.

하느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방향으로 사람과 세상이 살아가도록 몸소 역사에 참여하시는 뚜렷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교는 역사적 종교이다.

한국천주교회는 천주교가 한국땅에서 살아온 역사이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느님을 믿어 왔고 구원의 말씀을 고백하며 이 땅에 전제시킨 신앙의 역사이다. 이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며 함께 일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다. 구약성서가 이스라엘 민족사라면 한국천주교회는 한국 민족사이다. 그토록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다. 신앙인은 반성과 회개로 연명하는 사람들이다. 항상 변화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고백의 교회이다.

역사는 어제와 오늘의 대화이다. 과거와 현재를 짚아 살피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위대한 일은 나의 것으로 섭취함으로써 자신을 갱신하고 다시 세상으로 확장하지만, 피스런 일은 고백하고 변혁해야 한다. 잘못된 역사는 변명하거나 얼버무릴 이유가 없다. 역사는 사실이고 진실이다. 오히려 개혁할 교훈으로 삼을 때 은혜의 허물이 된다. 과거의 사건은 반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비슷한 예는 얼마든지 일어난다. 인간은 자신의 발전과 향상의 교훈을 교과서적인 이론에서 보다 역사의 사례(事例)에서 찾아 얻는다. 사례는 체험이고 체험은 이론보다 효과적이다. 과거를 극복하며 살았던 체험의 사례에서 가능한 삶의 모범을 자신의 것으로 실현할 신앙의 귀감을 얻게 된다.

으로 실현할 신앙의 귀감을 얻게 된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역사의 고되고 피나는 투쟁은 사람이 사람 대접 받고 사람 노릇하며 사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었다.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근거가 있고 또한 존엄하게 보존되도록 사회와 세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현실 구원의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밀알과 같은 희생과 고난을 극복하며 몸바쳐 왔다. 그렇지 못할 때 역사 안에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추방하는 꼴이 되어서이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인 한국천주교회를 구원의 도구로 삼아 전개하셨다. 한국천주교회는 이 민족과 국가와 시대에 이룩하신 구원의 역사이다. 거기서 한국천주교회는 고난의 통사(痛史)요, 순교의 혈사(血史)가 되었다.

인간의 정신은 변하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천주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일을 계획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활명력(活命力)과 생활의 지침(指針)을 자각케 하고 자세를 재정비해 줄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고난과 선혈의 팔자로 엮어진 순교사이다. 그러나 순교자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 박해의 공포와 생활의 피흘림 속에 신앙을 보존해 온 모든 사람들이다. 영웅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범인(凡人) 대중의 역사이다. 한국천주교회는 영웅적인 추앙과 경외의 대상만이 아니라 친근하게 모방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대중의 역사이다. 하느님은 시체를 좋아하시지 않는다.

전주교구사(全州教區史)는 한국천주교회의 요약(要約)과 같다. 그러면서도 다른 교구사에서 볼 수 없는 특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 유교와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 사회를 개혁하는 사건인 조상제사 문제의 발생지가 이곳으로 박해의 원죄(原罪)가 시작된 현장이다. 신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국제간의 협조를 강구하는 밀사파견의 자금 거출에 신자들이 앞장선 교구이다.

세계 순교사에서 사제의 신분, 귀족의 신분, 동정자의 신분에서 치명찬 분은 흔히 볼 수 있어도 동정부부가 치명찬 사례는 없으나 이 교구에서 유일하게 배출하였다. 또한 세계 순교사 중 최연소자를 배출한 교구도 이곳이다. 박해가 무리익으면서 형성된 신자들의 교우촌이 가장 많이 산재된 교구이기도 하다. 근대 민중운동의 전개인 동학혁명 운동에 가장 상처가 깊었던 교회였다.

하고 많은 교구와 풍족한 여건을 지닌 교구 중에서 한국 최초의 방인자치(邦人自治)교구로 설정된 것도 전주교구였다. 신앙의 깊은 곳까지 정착된 순교자 신심의 표본을 이룩하고 있는 곳도 바로 전주교구이다. 어느 사회이든 다른 지역과 상통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특산물이나 고유음식, 고유문화가 있게 된다. 한국교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역사를 전주교구가 이룩하고 있다는 것을 구름에 달 가듯이나마 분명하게 보았다.

□ **관광 안내**
주식회사 **한길관광여행사**
군산시 중앙로 1가 시청사거리
전화 ③0339 ③1147
우쿠 161, 547
대표이사 **박노석(요한)**
상임감사 **문재원(필라시오)**
제주·설악 대한항공 대리점

L.P.G 판매 시설(개업)
군산 **월명 가스 상사**
신속배달·무료점검
☎ ③0626 ③6509
주-염 마틸다

• 혼수(회갑) 옷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 고급 침구류 |
• 각종 솜 일체 |
• 커튼지 |
서울주단
☎ ③0453 ③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마춤·대여**
웨딩드레스·약혼복·연주복·부케·신부화장·비디오 촬영
신부의 집
동서관동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③ 6951
정인기(논지도)

□ 순교 인물전①

호남의 사도 유 항검

柳 恒儉(아우구스티노)은 진주(晉州) 유씨 연산공파로 서 양반의 후예였다. 그는 아버지 柳 東根과 어머니 權 召延 사이에서 1756년 지금의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 남부락에서 태어났다. ※그는 윤 지충의 고종사촌이요, 정 약용과는 사돈간이었다.

1784년 교회가 창설되고 그 소식이 호남에까지 전파되자 학문에 명성이 높은 경기도 양근(楊根) 땅 권 철신(權 哲身)의 집을 방문하여 천주교 교리서와 상본과 성물 등을 보게 되었다. 그후 권 일신(權日身)의 권고와 가르침을 받고 천주교에 입교하고 아우구스띠노라는 본명으로 영세하였다. 그의 영세시기는 1786년 봄 소위 가성직제도 또는 가성사집행제도(假聖事執行制度)의 모임에 성직자로 참석한 것으로 보아 1785년경으로 추측된다.

평소 유업(儒業)에 종사하며 벼슬길을 꿈꾸던 그가 천주교의 피수가 된 후 오로지 전교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1801년 호남에서 체포된 200여명이 유 항검의 전교에 소출될 신자임을 생각하면 사도적 활동의 열성을 본뜬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만금(萬金)의 재산을 가진 호남의 재벌이요, 학식과 듬직한 성품의 소유자여서 그가 권고하는 천주교에 흉랑 빠지지 않을 자가 없었다.

1788년 봄 무렵 유 항검은 교리서를 정독하다가 기절 초풍할 사실을 발견하였다. 정식 신품을 받지 않은 자는 성직자가 될 수 없고 성사를 집행하고 미사성체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무서운 독성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즉시 이 승훈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성사집행을 중단하도록 일렀다. 또한 이 가환(李家煥)은 이 모두가 무지한 소치이니 북경 주교에게 자세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과 신부의 초청을 운 띄웠다. 그후 신부 영입 운동은 윤 유일의 노력으로 1794년 12월 초 주 문모신부가 입국하여 성사되었다. 그러나 주신부의 입국으로 신부 영입운동은 신교(信敎)자유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그 주신을 북경 주교에게 의뢰할 필사를 파견하는데 소요되는 은전 400량의 자금과 탄원서의 연대서명을 전주지방교회 지도자들이 맡게 되었는데 결국 자금은 유 항검과 그의 조카 유 종태가 떠맡았다. 이 운동의 주모자격 역할은 결국 육시형으로 처형된 대역부도 죄목의 큰 몫이 되었다.

그의 깊은 신심은 무엇보다 큰 아들 유 중철(重喆, 요한)과 이 순이(李順伊, 누갈다)의 동정부부 생활을 허락한 용단에서 뚜렷했다. 그 당시 사회체제는 부계(父系) 중심으로 동정생활이 주는 비중은 여자보다 남자 편에 더 컸다. 삶의 결정권이 가장(家長)에게 있음을 감안할 때 장자의 동정생활을 허락하는 것은 자신의 가업(家業)

을 포기하는 처사였다. 그 시대 사회에서 가장(家長)과 장남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제사권(祭祀權)이었다. 양자를 입양하거나,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칠거지악(七去之惡)이 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불효인 까닭은 제사를 제승하고 가계를 잇지 못하는 연유였다. 결국 현실에서만이 죄인이 아니라 죽어서도 조상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조상을 아사(餓死)시키는 망종(亡種)이 되었다. 족보를 단종(斷種) 시키더라도 친상 유업을 끊을 수는 없었다. 전통사회 체제와 가치질서를 하느님께 바치면서 자기가 지닌 모든 삶을 제헌하는 아브라함의 장엄한 제사가 봉헌된 것이다. 기름진 농토, 번창한 가솔(家率), 부귀영화에 뒤겨진 생활일지라도 하느님의 뜻에 순종과 충성을 잠시도 망서릴 수 없었다.

이러한 자각과 자세가 돌연히 솟은 것은 아니었다. 1790년말 북경주교로부터 한국교회에 조상제사 금지령이 통보되고 유 항검에게 전해지자 한순간의 머뭇거림이 없이 신주(神主)를 폐기하였다. 1795년 4월 주문모 신부가 천주를 방문하여 그의 집에 한 주일을 머무는 동안 그는 사도로서의 막중한 책무와 사명감을 새삼 발견하였다.

1801년 1월 어린 순조임금을 섭정하는 대왕대비 김씨가 천주교 박해령을 공포하자 천주교도의 겹거 선봉은 전주라고 예의일 수는 없었다. 3월, 유 항검의 가택을 수색한 포졸들은 신주가 폐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주감영에서 진행된 문초중 들통난 죄질은 정부를 경악시켰다. 그것은 신교의 자유를 성취하려고 평화적으로나마 외부의 세력에 의존하려고 국제적 협력을 모의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유 항검은 정부 앞에서 만번 죽어도 후회없음을 고백했다. 유 항검은 천주교를 신봉한 죄와 정치적 음모의 국사범으로 9월 17일 남문 밖에서 서제(庶弟)인 유 관경과 윤 지현과 함께 육시형(觀屍刑)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남문 투각에 매달려 경각심의 선전거리가 되었다.

달레가 그의 순교 사실에 대해서 회의적인 기록을 남긴 것과는 달리 신자들의 증언은 엉뚱하게 분명했다. 순교자들의 치명사적을 수집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온 다블뤼 주교는 비망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전라도 전교에 열심했던 유 항검은 다른 세 사람과 같이 배교했다고 추측되는데 이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부정되므로 하느님 앞에 다른 순교자들의 빨마에 참여하리라고 믿고 있다". 또한 1909년 작성된 무텔문서에서 신자들은 "치명 성인 유 항검"으로 표현한다. 그는 분명한 신심으로 확실하게 치명한 것이다.

금·은·보석·시계는

금 보 장

장(방저거) 채(마리아)

전주 남문옆
(대지목욕탕 입구)

전화 6-4989(사구팔구)

만곡화실(박 요섭)

초상화 연구소

주문제작·개인지도

(취미·부업·직업·이민)

전주 전북일보사 사거리
교사금고 앞

전화 : 72-0362

최신유행 머리의 집

이리

나들이 미용실

창원동 1가 118(중앙시장
여고 입구)

전화 : ②-7901

※ 자격소지자로서 신자
미용사 구함

※ 마구로...이젠 참치예요

유진물산 전북대리점

숲정이 슈퍼마켓

☎ ③3550 김원걸(시릴로)

유진참치, 횡감, 구이감,
조림감, 부침감, 참치알,
참치 내장

※ 참치 전문요식점 모집함

□전주교구 200주년

순교자 유해 각 본당 순회 기도회

전주교구 200주년 정신운동위원회에서는 교구적인 정신운동을 위하여 순교자 유해 순회 기도회를 갖기로 하였다. 3월 21일 주교좌 성당에서 시작하여 각 지구별로 북자성월까지 하게 될 이 기도회는 200주년을 앞둔 정신운동으로써 교구 공동체의 일치를 굳게하는 신심운동이 될 것이다.

신심업 위주의 방향으로 하게 될 이 기도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 ① 본당 내 모든 신자가 금육과 단식을 한다.
 - ② 가능하면 철야기도를 권장한다.
 - ③ 성시간을 겸한 특별 참회에절과 고백성사를 권장한다.
 - ④ 순교자 생애에 대한 특별강론, 묵상을 한다.
 - ⑤ 순교자 유해 경배를 경건히 한다.
 - ⑥ 순교자 유해는 기도회를 개최할 본당 신부가 이미 끝난 본당에서 모셔온다.
 - ⑦ 순교자 유해의 환영과 공경 및 환송은 교회 내의 어떤 귀빈의 방문 이상으로 모든 신자들의 집합, 도열속에서 성가와 배례 속에 정중히 거행한다.
 - ⑧ 기도회 동안 특별 봉헌을 실시한다.
 - ⑨ 기도회 개최 전후에는 성지순례를 한다. 되도록 교구 내의 성지순례를 권장한다.
 - ⑩ 각 지구별로 순회하는 순례 기도단은 신심단체별로 임시 결성하여, 순번대로 각 본당의 순회 기도회에 지원 및 참여를 권장한다.
- * 다함께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

금마본당 성전 신축 기공식

지난 주일(6일) 금마본당(주임신부-김반석 신부)에서는 박정일 주교님의 집전으로 성전 신축 기공식이 있었다.

2년전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한 금마본당은 구 공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해 왔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였으나 대부분 가난한 농촌신자들로서 구성된 금마본당으로서는 성전 건축이 절실하면서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내왔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안에 하나로 일치하여 성전 건축을 결의한 신자들은 82년 9월 기성회를 구성하고 모금에 착수하여 지난 12월 말까지 3천여만원의 성전 신축금을 자진 신입하였고 좀더리를 하여 성미를 모으고 있으며 각 가정과 성당에서 매일 묵주신공을 바치는 등 성전 신축을 위해 물질, 영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당 신부님과 교우들께 성원을 보낸다.

□ 해외여행 및 성지순례 안내

-형제들을 위해 성실한 봉사자로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내 쇼 날 항공

전북지구 주재원 이 은 자(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01(가톨릭센터 후문)
전화 ④ 2502 · ⑤ 4471

200주년 기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2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념 행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기념 사업과 행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거나 단순히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일시적 축제가 되어서는 안되었을 것이다.

200주년 기념은 모든 이웃과 함께 특히 소외된 이웃 형제들과 함께 북한동포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60만 우리 모든 신도가 믿음과 사랑속에 일치되어 헌신적인 자세로 가진 바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만 '이 땅에 빛을' (200주년 기념 슬로건) 비출 수 있을 것이고 온 겨레를 하느님께 인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숲정이 캠페인

200주년 기도문을 바칩시다

우리들의 기도없이 200주년 기념의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 200주년 기도문은 이미 1982년 3월에 개최된 주교회의에 의해서 인준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배포되어 기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200주년 기도문을

- 모든 교회의 전례중이나 끝날 때
- 교회내의 모든 단체행사에서
- 가정에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200주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하자.

마니피жат 합창단원 모집

전주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산하의 마니피жат 합창단에서는 성가를 통하여 신앙심을 앙양하고, 가톨릭 공동체 실현에 목적을 두고 매주 월요일 정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안에 새로이 자리를 함께 할 제3기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1. 대 상 : 각 대학에 재학중인 신자 및 예비신자
2. 단원심사 : 본단의 지원서와 실기에 의하며, 실기는 자유곡 1곡으로 하되, 성가 또는 국내의 가곡으로 함.
3. 일 시 : 1983년 3월 14일 오후 5시30분
4. 장 소 : 전주 중앙신용협동조합 3층(육교옆)
5. 문의처 : 교육국

□ 각종 신발 도산매

새마을 신집

숙녀화 · 아동화 · 특수화

남부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

김문식(베드로)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2628

이마리아(명자)
범띠또(덕배)



□ 교구청 직원 동향

4국으로 분리된 교구청 직원의 동향과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무국: 1. 전 자석(빈첸시오) - 200주년 제반 사무, 제단체에 관한 사무 및 교구적 사무사항에 관한 제반 업무, 공소지도 및 전교사 활동 지도 2. 김 말다 - 사회복지 및 인성회의 제반 업무, 신학생후원 및 성소제발 활동 3. 김 아가다 - 각종 성사문서 정리, 도서관 업무

*관리국: (법인 사무실) 1. 서무부장 김 정규(요셉) - 재단법인 사무 전반, 학교법인 사무 전반 2. 서기 정 상권(발다살) - 서무부장 보조, 영사기 기사 3. 운전기사 윤 팔만(다두) - 교구차량 운전 및 정비, 인쇄실 담당 4. 타자수 조 안나 - 공타자수. (총경리실) 1. 김 도나다 - 교구 경리 담당

(관리국) 1. 관리부장 서 정길(요셉) - 수익사업체 업무 전반, 중앙상가, 이리상가 담당 2. 관리과장 박 형식(다두) - 관리부장 보조, 성모병원 및 전동상가 담당 3. 김 원(보스프) - 센타 운영 담당 4. 오 엘리사벳 - 관리부장 보조, 센타 경리 담당

*교육국: 1. 김 보나 수녀 - 부녀교육 담당 2. 신 릃다 - 청소년교육 담당 3. 이 주철(야고보) - 성인교육 담당

*홍보국: 1. 오 프란체스카 수녀 - 순정이 편집, 시청자자료 2. 임 안나 - 어린이양편집

□ 수류, 사제관 복구를 위한 특별헌금

사제관 개축에 애쓰고 있는 수류본당을 위해 제 1 지구에 속한 본당들은 특별헌금을 실시하여 60여만원을 전달했다. 교구 사제단에서도 100만원을 전달했고, 교구 인성회에서도 100만원을 기증했다. 이밖에 여러 본당에서 일지와 형제애를 나누기 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훌륭한 사제관이 신축되기를 염원한다.

□ 부녀자를 위한 성서 40주간, 예비신자 교리

급변 교육국에서는 부녀자를 위한 특별시간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시간이 잘 맞지 않아 성서와 교리를 배울 수 없었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시간은 오랫동안 교육에 헌신하신 김 보나 수녀님이 맡아 주실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주님의 진리를 깊이 맛들이며 보다 굳건한 신앙의 바탕을 형성하시길 바란다.

성서 40주간반: 4월 7일(목) 오후 2시. 예비자 교리(낮반): 4월 6일(수) 오후 2시
장소: 가톨릭 센타. 접수마감: 3월 31일

□ 교구 인성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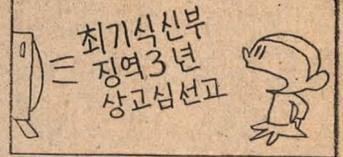
인성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1. 수류천주교회 사제관 복구비 100만원 2. 군산교도소 사복을 위해 20만원 3. 전동천주교회내 한솔 야간학교 유치비 22만원을 각각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었습니다. -인성회 사무국-

□ 가톨릭 여학생관 폐관

1964년 9월 학업을 위하여 타지방에서 전주로 오는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차로써 개관했던 여학생관은 생활교육의 장으로써 여러 신부님, 신자분들, 뿐 아니라 이곳 지방민의 사랑 속에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2년 11월 사제평의회에서 교구 내에 증가되는 교육의 필요성에 의하여 여학생관을 피정센타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학생관은 83년 2월 28일자로 폐관되었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보다 발전적인 면에서 본 건물이 이용되는 것이기에 한탄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여학생관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순정이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학생관 사감 신 옥희(릿다)

요심이 (501) 김병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썬타

질에서나 값에서나 정성을 다해드립니다.

구역전 오거리

전화: ☎ 3032

윤(베드로) 종선

전주 노라노 양재·미용 학원

미용과 | 미용시험 대비반 접수중
양재과 | (1차시험 - 4월 3일, 2차시험 - 9월 18일)
한복과 | 주·야간반 수시 모집 (통학권 발급)

철저한 개인지도, 기숙사 완비
전주시 고사동 1가 전북 적십자사 앞 5층 건물
전화 ☎ 4835 · ☎ 9826
원장 김 베드로 · 김 안나

모 집 공 고

당 업체는 섬유 수출 업체로써 참신하고 의욕적인 근로 기능사원 및 견습사원을 모집합니다

영 화 섬 유 공 업 사

전주시 서서학동 281번지 전화 ☎ 6047

대 표: 오 윤 길(벨라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 **축! 전주 금암동 새성당 기공식:** 19일 오전 11시, 이리 제3성당 기공식: 20일 오전 10시30분
1. 평협 정기총회: 20일(일) 오전 9시30분, 가톨릭 센터
 2. 휘글라레 월 전체 여자 모임: 13일(일) 오후 2시30분, 중앙성당
 3. 본당 지도자 연수회: 13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대상-사도회장·봉사분과위원장·인성회장, 센터
 4. 사도회 각 분과위원장 연수회(제1차): 19일 오후 3시~20일 오후 3시, 대상-사도회 각 분과위원장(1·2차 나누어 참석), 참가비-7천원, 장소-가톨릭 센터
 5. 성령쇄신 피정: 21일~23일(2박 3일), 참가비-1만2천원, 장소-가톨릭 센터
- ◎ **축! 영명:** 19일 성요셉-김종택, 안복진, 배영근, 유장훈, 정승현, 김순배, 강덕행, 나궁렬, 서광석, 조정오 신부님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한기철
 보좌 신부 안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 ☆ **축! 새성당 착공식:** 19일 11시, 주교님 집전
1.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21일, 저녁 7시 (주교님 특별 강론)
 2. 부활 판공 일정: 20일-공소, 22일-금암·태평, 23일-고사·경원·중노, 24일-진북·서노, 25일-인후, 26일-학생·기타 ※ 시간: 오전 10~12시, 오후 7~9시, 토요일 3~6시
 3. 부활반 예비자: 종합교리-17~19일 오후 7시30분, 장소-강당, 면접-29~30일 오전 10~12시·오후 7~9시, 장소-사무실
 4. 경향잡지 구독: 1권 월-1,300원, 년-13,000원
 5. 신축현금 신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순서·신하선·오요셉외나(각 10만원) 신축현금 누계-119,687,600원)
 6. 환영합니다: 이번주 전일자: 최석일·이연도
- **지난주 봉헌금:** 836,561원 **교무금:** 865,500원

(노송동)

신부 ⑩0969
 수.사 ⑩7032
 주임 신부 김태성
 보좌 신부 나춘재
 사도 회장 이홍재

1. 본당 판공일정: 21일-인후아파트, 22일-우아동, 23일·24일-인후동, 25일-중노1동, 28일·29일-중노2동, 30일-남노송동 ※ 시간: 매일 오후 2시~5시, 저녁 7시~9시30분
 2. 사순절 특별강론: 16일 밤 8시 미사후, 이태주 선생
 3. 본당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잔부님들
 4. 성당 청소담당: 자비의 모후팀과 성모영보팀
 5. 아파트 소식: ① 예비자 교리(부녀반)-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② 베소라 총회-20일 공식미사 후 ③ 중·고등부 학생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360,365원 **아파트:** 53,000원 **교무금:** 295,000원 **아파트:** 17,000원

(덕진)

전화 ⑩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정양협
 사도 회장 양상협

1. 부활 판공: 15~16일-덕진구역, 17~18일-금암구역, 22~23일-송천구역, 24~25일-팔복구역, 14일·21일 오후 3시-대학생 전원, 19일 오후 3시-전 중·고생, 26일 오후 3시-국민학생 ※ 동산촌-주일 저녁미사 전후에, 미산리·전당리·내동리-토요일 미사 전후에 각 공소에서
 2. 유아세례: 16일 오후 3시-7세미만 어린이, 보레자
 3. 병자성사 및 봉선체: 28~30일, 사무실에 신청
 4. 본당 부녀회 발족: 공식미사 후-카리따스회(25~40세 어머니), 성직부녀회(40~55세 어머니)
 5. 레지오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학생회관)
 6. 축! 푸르실로 수강: 육성용, 김영
 7. 반석회 릴레회의: 다음주(30세이상 남자 참여)
 8. 젊은이 모임: 30세이하 청년 남녀
- **지난주 봉헌금:** 449,600원 **교무금:** 467,500원

(복자)

전화 ⑩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첫영성체 교리: 3월 13일~4월 2일까지 오후 4~5시
3. 자모회: 14일 어머니 미사후
4. 사도회임원 연수회: 19일
5. 성지순례: 25일 7시 출발, 회비-3천원, 20일까지
7. 사순절 피정: 26일 오후 7시, 27일(주일) 오전 10시 강사-이인복 교수 ※ 이날 10시30분 미사를 10시로
8. 각 신자 가정 교과불이기: 1개 300원, 빈첸시오집에

9. 부활 판공성사: 26일·27일-직장인 학생 매 미사전 후, 28일-다가동·중앙동·고사동·완산동, 29일-화산동·태평동·진북동·기타
 오전 10~12시, 오후 2~5시
 10.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이갑진 ②하순덕
 처주전례: 해설-김재석, 독서-①장기연 ②신철편
- **지난주 봉헌금:** 516,960원

(서학동)

전화 ⑩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가정방문: 15일부터 실시, 이사오신분 사무실에연락
 2. 성심부녀회: 13일 오후 2시
 3. 반장회: 공식미사 후
 4. 공소판공: 광곡-15일 15:00, 마음리-17일 15:00
 5.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수류성당을 다음시다: 이번주일 헌금합니다
 7. 18차 남성 푸르실로: 박경환(마태오)씨 기도합니다
 8. 성서 모임: 매주 수요일(오후 2시) 금요일(오후 2시, 저녁 8시)
 9. 차주전례: 독서-①이정빈 ②김한기
- **지난주 봉헌금:** 286,435원 **교무금:** 196,000원

(숲정이)

전화 ⑩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⑩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각 분과위원회 모임: 매월 끝주 금요일 20:00
 2. 꾸리아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사순절 신앙강연: 16일 19:00
 4. 부활절 성가연습: 21일~30일 20:00
 5. 영건 미역 판매: 3월 말까지(1상자 2천원)
 6. 부활 판공성사: 시간15:00~18:00
 14일-서신1·2구, 15일-서신3·4구, 16일-서신5구·은골, 17일-진북1·태평동, 18일-금암1·2구
 7. 금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①남상용 ②김경주
 기도-이은자·황연도
 차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①홍성조 ②김영철
 기도-노재두·유희자
- ※ **신학생 후원금:** 187,790원
 □ **지난주 봉헌금:** 151,595원 **교무금:** 420,400원

(전동)

신부 ⑩6208
 전화 사무 ⑩3222
 수녀 ⑩8347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찬길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2. 성마리아 꾸리아: 오후 2시
 3. 성화회·포미시움: 다음주
 4. 부활절 9일기구: 치명자산 미사(16일~26일), 새벽 5시30분(본당 아침미사 없음, 주일은 제외)
 5. 중·고생 신입생 환영회: 학생미사 후
 6. 예비자 83년 1차 모집안내: 8일(성모동소승천) 영세-3일 모집, 일반인(주부)-금요일 오전 10시30분, 직장인-금요일 오후 7시30분, 합반-일 공식미사후
 7. 글로리아 성가대: 부활절 성가연습중 오후 7시
 8. 철야기도회: 19일 밤 10시~새벽 5시(새벽미사연결)
- **지난주 봉헌금:** 671,300원

(파티마)

신부 ⑩0915
 수녀 ⑩4804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14일과 17일 본당 미사 없음: 공소미사 있는 관계로
 2. 공소 판공일: 돌곡리-17일, 두현리-14일
 3. 예비자 영세전 특별교리: 23일~25일(8시)
 4. 본당 불판공일: 다음주(20일) 유익사항-①성사표지찰, ② 미사 봉헌 예물
 5. 성교분과위원 회합: 오늘밤 미사 후
 6. 성모회 1일피정: 22일(모든분), 기도-상서극장 신부
- **지난주 봉헌금:** 231,610원 **교무금:** 270,000원